

연행 體驗 기록의 慣行과 그 매커니즘*

金 玲 竹**

<目 次>

- I. 머리말
- II. 기록의 관행
 - 1. 傳言에 의한 기록
 - 2. 先行 기록에 의한 영향관계
- III.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에서 다룬 연행 체험 기록의 관행과 그 매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연행 체험자들의 일련의 ‘기록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시기를 18세기와 19세기 초반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가장 활발하게 연행록이 저작되었던 점과 기록의 踏襲, 修整 및 擴張 등의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金昌業의 『燕行日記』 이후 18세기 중반까지의 연행록 ‘體制’의 상호 답습과 자료의 확충은 유행처럼 번지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 더욱 확연해진다. 대체로 18세기 중반까지의 연행록들은 『燕行日記』를 답습하고 연행 노정에

* 본고는 2016년 11월 18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南京大 문학원·성균관대 동아시아 한문학연구소·성균관대 코어사업단이 공동주최한 제1회 燕行錄國際學術大會·연행록을 읽는 몇 가지 시선·에서 발표했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 wenxue@hanmail.net

서 이를 실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18세기 중·후반으로 들어서면 이미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스스로 기록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 연행록 데이터가 집적되고 검색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자들은 연행록들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단일 텍스트의 '개성적' 부분이라 여겨진 것이, 결국 踏襲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모두 '沒個性的'이고, '沒價值'한 것으로서 置之度外할 수 있을까. 따라서 수많은 연행록들 속에서 흔히 보이는 기록의 유사성, 그 動因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한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행 기록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행의 체험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작자의 기록적 욕구와 직접 체험의 한계에 있을 때에는 수행한 이들의耳目을 빌어 기록한다. 즉 代理見聞에 의한 기록인데, 이는 연행록의 저자가 三使의 신분일 때 종종 그러하다. 둘째, 前代 연행록의 踏襲과 補完이다. 『燕行日記』는 18세기 이후 연행록의 '原型'으로 취급된다. 때문에 다수의 연행록이 이를 답습했으며, 나아가 저자 개인의 견문과 지식수준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연행 관련 정보를 부연하고 확장시켜 나간다. 이에 이러한 경향성이 잘 구현된 연행록들을 분석하여 그 動因을 밝혀, 연행록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제어】 18·19세기 연행록, 답습, 부연, 확장, 기록의 관행

1. 머리말

자의적 해외체험이 드물었던 전통시대에 燕行이란, 구조적으로 공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은 이를 엄연한 旅行으로 간주한 바 있다. 즉 公的 루트를 통한 私的 여행의 연장선인 셈이다. 따라서 연행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목적과 이해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한편, 연행은 명실상부 외교적 사안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同文彙考』에 실린 使臣別單 등을 통해 당시 공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外面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여기서 굳이 外面이라 명명한 이유는 그 ‘裏面’의 사실 또한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행의 체험¹⁾은 산문이나 시, 혹은 산문과 시가 결합된 형태로 기록되어왔다.²⁾ 그렇게 지어진 작품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연행을 간접 體驗하고 享有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따라서 연행의 체험과 향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행과 관련한 私적인 저술은 모두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저자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또 주목할 점은 18·19세기 연행록 간에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연행 체험 기록의 관행과 그 매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연행 체험자들의 일련의 ‘기록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시기를 18세기와 19세기 초반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가장 활발하게 연행록이 저작되었던 점과 기록의 踏襲, 修整 및 擴張 등의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金昌業의 『燕行日記』 이후 18세기 중반까지의 연행록 ‘體制’의 상호 답습과 자료의 확충은 유행처럼 번지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 더욱 확연해진다. 1832년 金景善은 『燕轅直指』를 구성하면서, 金昌業의 『燕行日記』, 洪大容의 『燕記』,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3대 연행록으로 꼽은 바 있다. 『熱河日記』와 『燕記』가 그 구성면에서 출중하다면, 金昌業의 『燕行日記』는 그야말로 후대 연행 기록물들이 답습의 표본으로 삼는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까지의 연행록들은 『燕行日記』를 답습하고 연행 노정에서 이를 실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18세기 중·

1) 여기서는 水路朝天과 陸路燕行 모두를 포함한다.

2) 예외의 경우로 金照의 『觀海錄』(1784)은 散文+批評(他人)으로, 金進洙의 『燕京雜詠』(1832)은 詩+詩註+詩評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으로 들어서면 이미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스스로 기록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 여행록 데이터가 집적되고 검색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자들은 여행록들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단일 텍스트의 '개성적' 부분이라 여겨진 것이, 결국 踏襲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모두 '沒個性的'이고, '沒價值'한 것으로서置之度外할 수 있을까. 따라서 『燕行日記』 이후의 여행록에서 흔히 보이는 기록의 유사성, 그 動因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한다.

이전의 3대 여행록 외에도 姜浩溥의 『桑蓬錄』(1727), 李義鳳의 『北轅錄』(1760), 李海應의 『蔚山起程』(1803), 李永得의 『燕行雜錄』(1822), 金景善의 『燕轅直指』(1832)·『出疆錄』(1850) 등은 주요한 자료이다. 특히 李永得的 『燕行雜錄』은 16冊의 巨帙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직접 견문한 실질적 여행기록은 권6~권8에 해당하는 3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내의 지리서를 활용하여 편집한 형태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여행 기록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여행의 체험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작자의 기록적 욕구와 직접 체험의 한계가 있을 때에는 수행한 이들의耳目을 빌어 기록한다. 즉 代理見聞에 의한 기록인데, 이는 여행록의 저자가 三使의 신분일 때 종종 그러하다. 둘째, 前代 여행록의 踏襲과 補完이다. 『燕行日記』는 18세기 이후 여행록 구성의 '原型'으로 취급된다.³⁾ 때문에 다수의 여행록이 이를 답습했으며, 나아가 저자 개인의 견문과 지식수준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여행 관련 정보를 부연하고 확장시켜 나간다. 이에 이러한 경향성이 잘

3) 임기중 선생은 「여행가사와 여행록의 상호원전성과 유행양식」(『여행록연구 총위』, 학고방, 2014)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떠오기'와 '따오기'를 踏襲의 범주로, '다르게 하기'는 互避의 범주로 구분한다. 필자 역시 이 논의를 수용하는 한편, 제시되지 않았던 텍스트를 추가하여 踏襲을 넘어 修整, 補完하려는 저자의 의도와 그 의미를 살피는데 주력하였다.

구현된 연행록들을 분석하여 그 動因 밝혀, 연행록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기록의 관행

1. 傳言에 의한 기록

연행 체험의 기록 가운데 驛官과 伴尙⁴⁾, 馬頭輩의 ‘傳言’은 頻出한다.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이나 폭 넓은 정보 수집의 욕구 등으로 인해 이른바 代理見聞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연행 체험이 비교적 많은 그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은 저자에 의해 재가공 되어 다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즉, 수행원의 耳目을 빌어 代理見聞하는 것은 작자의 기록적 욕구와 직접 체험의 한계가 결합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모든 수행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년간의 연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지의 정보와 사정에 밝아야 하는데, 이들이 바로 驛官과 馬頭輩이다. 특히 馬頭輩은 산악인의 셰르파(shopa)와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일정의 잡무와 위험한 일들을 감수한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耳目이 되어준다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驛官은 기본적인 통역 외에도 三使를 도와 현지에서의 공무를 처리하고, 조정의 일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즉, 연행에 있어 ‘정보 입수’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행적은 實錄의 別單이나 그들의 전언을 정보로 간주하여 2차적으로 수용하고 기술한 사대부 문인들의

4) 伴尙은 연행 구성원의 직책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다. 간혹, 연행록의 人馬總數를 기록함에 있어 三使의 수행원들 중 ‘반당’이라 지칭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까운 知人으로서 연행시 軍官 등의 임시 직책으로 수행한 이들을 범칭 하여 반당이라 한다. 주로 사신들이 自費를 들여 함께 동행했던 인물들이다.

사적 연행록에서 종종 발견된다.

다음은 그 예시들이다.

1) 馬頭輩

a. 세팔이 말하기를, “연전에 이곳을 들렀는데 문 밖에 牌樓 하나가 있었고, 殿宇는 허물어져 황폐해진 먼지에 신발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모습이 크게 달라져 분별할 수 없습니다.”라 하고 또 “이곳은 옛 사람들의 서화가 많이 쌓여 있어서 사신 행렬들이 대부분 두루 살폈습니다.”라 하였다. 나는 김창업이 진미공(陳眉公; 진계유)의 <水墨龍圖>를 완상하던 곳이 과연 이곳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⁵⁾

b. 書者馬頭 천석이 말하길 자신이 이미 18차례 연경에 와봤으나 오늘 일정만이 태평했다고 한다. 일찍이 어떤 해에는 통주에서 비를 만나 길이 진창이 되어 하루에 3,40리를 가 50여일 지나서야 간신히 책문에 도달한 적도 있었다. 또 몇 년 전에는 40일 만에 책문에 도착하여 주방의 양식이 모두 떨어지는 바람에 어려움이 매우 심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겨울부터 봄까지 큰 비나 눈이 오지 않고 또 얼음도 빨리 녹아 진창으로 길이 막히는 근심거리가 없다고 했다.⁶⁾

a는 1760년 李義鳳의 『北轅錄』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는 서장관이었던 아버지 李徽中의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였다. 예문에 등장하는 世八은 이의봉·홍대용 등과 동행했던 마두로서 수십 차례의 연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이의봉은 연행 이전에 金昌業의 『燕行日記』를 탐독하는데, 당시 金昌業의 『燕行日記』는 후배 연행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지

5) 李義鳳, 『北轅錄』 권3, 1760년 1월 24일, “世八言; ‘年前過此, 則門外有一牌樓, 而殿宇頽圯, 荒塵沒履. 今則面目大異, 不可辨矣.’ 且云; ‘此地多積古人書畫, 故使行多歷覽.’ 余始覺金昌業之玩陳眉公水墨龍處, 果此宮也.”

6) 李永得, 『燕行雜錄』 권8, 2월 15일, “書者千石言; ‘渠已十八次赴燕, 惟今行太平云. 曾於何年, 自通州遭雨露泥, 日行三四十里, 凡五十餘日, 堇達柵門. 數年前, 又以四十日到柵, 廚房糧饌具絕食, 政尤難云. 今則自冬至春, 無大雨雪, 且解凍早, 故無泥淖難通之患.’”

침서와 같았다. 세팔의 안내로 들어갔던 곳은 이전에 김창업 또한 방문한 곳이었다. 그러나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황폐해져 어떤 용도로 쓰이던 곳인지 초행자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이 무렵, 세팔은 이전 연행 기억을 더듬어 사신들이 古書畵를 열람했던 장소임을 설명하고, 이의봉은 이를 듣고 陳繼儒의 <水墨龍圖>가 소장되어 있던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비록 김창업처럼 직접 진계유의 작품을 완상하지는 못했지만, 세팔이 전해 준 정보로 인해 이 황폐한 공간은 의미 있게 남는 것이다.

b는 1822년 연행한 李永得의 『燕行雜錄』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여기서 언급된 서자마두 천석 역시 18차례 연행의 경험이 있었다.⁷⁾ 자신이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의 연행길에 비해 이번 연행(1822)이 훨씬 수월하다는 경험담을 풀어낸다. 실제로 그러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馬頭輩는 대체로 비슷한 언사로서 일행을 안심시키는데, 역시 노련함에서 나오는 기지일 수 있다.

c. 나는 역관에게 부탁해서 이 두 책(『독례통고』와 『천하명산기』)을 구했다. 부사께서 내 말을 듣고 또한 사고 싶어 하시기에 역관에게 엄히 분부하였는데, 이 두 책이 모두 없어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두 수만은 내가 서책에癖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또한 내가 이 두 책을 구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을 알고는 내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다. “燕法에 오직 序班만이 우리 사행에게 책을 팔 수 있습니다. 다른 호인들은 감히 서책을 지니고 관소에 들어 오지 못합니다.”⁸⁾

7) 1822년에는 書者馬頭로 연행하고, 1832년에는 籠馬頭로 연행에 참여한다. 金景善, 『燕轅直指』 권1, 1832년 11월 21일. “其外籠馬頭千石, 左牽昇學, 並宜川人. 書者達陪, 瑞興人. 日傘捧持益烈, 郭山人. 亦皆屢作此行. 勤幹頗可仗, 實爲可幸.”

8) 姜浩溥, 『桑蓬錄』, 1728년 2월 7일, “余請於譯官, 求此二書(讀禮通考, 天下名山記). 令公聞吾言, 亦欲買之, 嚴分付於譯官, 而此二書皆無有云, 不爲得納. 馬頭壽萬習知吾之有癖於書冊, 又見吾求此二書而未得也, 從容謂余曰; ‘燕法, 惟序班賣書於我使行, 他胡則不敢持書冊入館.’”

d. 최운태는 선천 마두다. 연경을 무릇 47차례나 왕래하여 그곳의 유람한 곳 및 풍요, 물정과 재물이 많은 곳이나 잇속을 볼 만한 근원 따위를 남김없이 꿰뚫고 있었으니, 비록 노련한 역관들도 그에게 미치지 못했다. 전후의 사신들이 온갖 일을 꼭 그에게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척척 대답하였다. 그 공로로 몇 해 전에 사신이 어전에서 아뢰어 관직이 올라 邊將을 제수 받기에 이르렀다. 지금 그 사람을 보니, 늙었으나 더욱 원기 왕성하였다. 연경에서 노닌 발자취를 들려 주었는데, 산천, 길의 이수, 누대, 성곽과 궁궐, 시장, 상점, 苑圃, 화초, 금수, 보화, 진기한 물건들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글을 외듯 하였다.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죽 둘러앉아 듣고서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으니, 변방 성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일거리였다.9)

c는 1728년 여행했던 姜浩溥의 『桑蓬錄』에 기록된 일화이다. 강호부 역시 부사 李世瑾의 반당으로 입연하였으며 초행길이었다. 그는 여행 내내 定州馬頭 金壽萬에게 의지했는데, 수만은 기대에 부응하듯 자질구레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임무까지 척척 해결해낸다. 더욱이 煙竹을 다시 챙겨오는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을뿐더러 淸人을 꾸짖어 곤경에 빠친 강호부를 구해내기도 한다. 심지어 그는 漢語를 전혀 하지 못하는 강호부를 두둔하며 “평소에도 말수가 적으시다.[亦素罕言語矣]”고 변명해주는 채치까지 지닌 인물이다. 수만은 실로 강호부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의 역할까지 도맡아 한다. 『상봉록』에 등장하는 상당 부분의 이야기는 수만과 같은 下隸들의 傳言과 활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위의 예문은 서책 구입과 관련한 마두 수만의 활약을 그려낸 부분이다. 반드시 역관을 통해서 서책을 구입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던 강호부에게 마두 수만

9) 朴思浩, 『心田稿』, 「燕薊起程」 1828년 11월 18일, “崔雲泰, 宣川馬頭也. 赴燕凡四十七次, 彼中游覽處及風謠物情, 貨窟利竇, 洞悉無餘. 雖老譯, 莫能及焉. 前後使臣, 百事必問, 應口輒對. 以其功勞, 年前使臣筵奏陞資, 至除邊將. 今見其人, 老而益壯, 指示游燕之跡, 山川·道里·樓台·城闕·市肆·苑圃·花卉·禽獸·寶貨·珍怪之物, 如誦宿文. 初行諸人環坐而聽之, 皆目瞠口舌, 久滯邊城, 好得消遣之資也.”

은 ‘서반’의 존재를 알려준다. 당시 연경에서의 서책 구입 대부분이 序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초행길이었던 강호부는 이러한 사정에 어두웠던 것이다. 역관은 이를 모르고 있던 바가 아니었으나 그들 역시 처리해야 할 잡무들로 인해 三使를 제외한 수행원들의 개인적 부탁은 등한시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수만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d는 朴思浩의 『心田稿』 『燕薊起程』에 실린 내용이다. 최운태는 앞서 언급한 천석의 3배 가까운 횡수로 연경을 왕래하고, 漢語에도 능통하였으며 다양한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박사호가 기록한 최운태의 행적을 살펴보면 비단 박사호 개인의 연행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역관을 능가하는 현지에서의 소통능력과 다년간의 연행경험으로 지리 정보에 밝아 그와 동행하는 연행자들의耳目이 되기에 충분했다. 최운태는 1790년 정사의 반당으로 동행한 白景炫의 『燕行日錄』에도 그 행적이 드러난다. 박사호와 함께 동행한 시점은 이미 그의 노련함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이라 추측된다. 문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18,19세기에 걸쳐 그가 이루어 놓은 ‘중국망’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지점이다.

漢語에 능통한 馬頭輩는 통상적으로 驛官이 하던 자잘한 소임을 대신 하기도 했다. 다음은 黃梓의 『甲寅燕行錄』에 실린 내용이다.

저물녘에 부사가 만나러 왔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山西출신으로 행상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려다가 마두를 시켜 물어보기를, “만주족과 한족은 서로 혼인하는가?”했더니 그가 발끈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 나를 모욕하는가.” 라 하였다. 또 묻기를, “산서도 만주인들이 있지 않은가?” 하니, “산동과 산서를 막론하고 州縣마다 만주인들 5,6천인을 거주하게 했는데, 별도의 구역에 두어서 한족과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대화를 나눌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왜 首譯을 시켜 문답을 하지 않으시오?”라 하니 부사가 “역관과 마주 하면 저들이 아예 말을 하려 들지 않으니 馬頭만 못하오.”라고 말했다.¹⁰⁾

馬頭輩를 통해 문답하던 내용은 滿·漢갈등에 관한 꽤 비중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도리어 역관이 나서면 문답커녕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터라, 馬頭輩가 그 소임을 대신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馬頭輩가 역관이 하려 하지 않는 일상의 소소한 통역뿐 아니라 당시 민감한 사안도 거침없이 해결하던 상황을 보여준다.

1790년 연행한 柳得恭은 『熱河紀行詩註』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예기』에 이르길, ‘잘하는구나. 타국의 형편을 엿보이여!’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사신의 직분이다. 타국의 형편을 엿보는 방도는 또한耳目에 있는데, 군관과 역관, 판서지방의 마두배와 의주의 수행원으로부터 저편의 통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신의耳目이 된다. 이들 무리는 곤궁한 처지에 의지할 곳이 없어 번갈아가며 속이기를 일삼고 있으니, 어느 겨를에 눈이 되고 귀가 될 수 있으랴.¹¹⁾

馬頭輩가 사신의耳目이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에 못지 않은 폐단도 속출하기 마련이다. 그들의 傳言에 무작정 의지하다보면 상황이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그에 기반한 기록 역시 100%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실, 연행록 류에 소개되는 근거 없는 道聽塗說은 이들의 傳言이 출처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득공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경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박지원 역시 연행 길에서 “마두들만 믿고 있는 일행들이 가없구려[眷屬還憐恃馬頭].”¹²⁾라 하여 그들이 사신들의耳目을

10) 黃粹, 『甲寅燕行錄』 권1, 1734년 8월 11일, “向夕副使來見仍言, 有山西人行商者, 招來使馬頭問曰; ‘滿漢與之嫁娶否?’ 彼則勃然曰; ‘爾何辱我.’ 又問曰; ‘山西亦有滿人否?’ 曰; ‘毋論山東西, 州縣皆置滿人五六千, 而使之別處, 不與漢人相雜云矣.’ 余曰; ‘如逢可語者, 何不使首譯問答也?’ 曰; ‘對譯官則彼不肯言, 都不如馬頭云矣.’”

11) 柳得恭, 『熱河紀行詩註』, “記曰, 善哉胡國乎. 此使臣之職耳, 其所以覘之之道, 抑在乎耳目, 軍官譯官, 關西馬頭, 灣上跟役, 以至彼中通官, 皆使臣之耳目也, 此屬方且困窮無聊, 交相欺詐, 奚暇爲耳爲目乎哉.”

12) 朴趾源, 『燕巖集』 권4, 「映帶亭雜咏」.

좌지우지하던 폐해를 질타하였다.

馬頭輩의 傳言은 저자가 그들의 이름을 特記하지 않는 한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운태 式의 口述은 연행록 저자들에게 생생한 현지정보와 저작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2) 譯官

a. 오늘, 상명¹³⁾이 통관으로 하여금 역관 金時裕(金是瑜)¹⁴⁾를 보길 청하였는데, 김시유는 상명에게 간다고 아뢰었다. 부사께서 시유에게 일러 말하길 “이번 길에 그대를 데려온 것은 오로지 史策 一款을 위함이다. 내년 12월에 開刊을 마치리라 했던 말이 이미 상명의 작년 편지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지금 그 기한이 지났다. 이번 행차에 만일 刊本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대가 작년에 주선하겠다고 운운했던 말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길에 따로 啓請하여 데려온 뜻이 장차 허사로 돌아갈 것이니 그대가 어찌 罪責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상명을 보고 이 말을 이르되 말을 잘하여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라.”¹⁵⁾

b. 貴咨官 洪命福이 手本으로 저곳의 사정을 말하였다. 거기에 아뢰기를, “황제의 팔순(八旬) 稱賀에 관해 禮部에 물었더니, ‘금년 3월에 명을 내려 즉위 55년이 되는 해에 거행하라 하였고, 4월에 또 명을 내려 55년이 되는 해에 山東에 거둥하여 泰山에 禮祭하고 闕里的 孔子 사당에 展謁하겠다 하셨다.’고 대답하였

13) 金常明 혹은 金尙明으로 표기된다. 實錄에도 혼용되고 있는데,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징』(혜안, 2007)에서는 金尙明으로 비정하고 있다. 박지원의 『熱河日記』와 서호수의 『燕行記』 등에는 金常明으로 표기하고 있다.

14) 姜浩溥의 『桑蓬錄』에는 金時裕라 되어 있으나, 이는 金是瑜의 誤字이다.

15) 姜浩溥, 『桑蓬錄』 권8, 1728년 1월 4일, “今日常明, 令通官請見譯官金時裕, 時裕以將往于常明之意告之. 副使令公謂時裕曰; ‘今行率君而來者, 專爲史策一款也. 明年臘月, 可以畢刊之說. 旣明言於常明之去年書, 而今旣過其限矣. 今行若未得其刊本而歸, 則君所云去年周旋云云之說, 不免爲僞飾之言. 而別啓請以來之意. 又將歸處, 君豈逃其罪責哉. 君往見常明, 諭以此意, 善爲說辭, 毋有虛還之弊也.’”

습니다. 緬甸國은 雲南 밖 먼 남쪽에 있어 길이 매우 멀니다. 금년에 먼전국의 추장이 두목 세 사람을 보내어 表文과 貢物을 바치기 위해 운남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이 바칠 공물은 黃金塔과 길들인 코끼리 8마리라고 합니다. 安南國은 임금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는 변란이 생겨 그 왕비와 세자가 바다를 건너 廣西省으로 와서 구원을 요청하자, 광서 총독이 급히 조정에 아뢰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광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 변란의 연유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는 장차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臺灣의 사변은 금년 3월에 역적 괴수 林爽文 등 8명을 북경으로 잡아다가 이미 처형하였고, 出征했던 福康安·海蘭泰 등은 公爵으로 進封되었다고 합니다.”¹⁶⁾

a는 姜浩溥의 『桑蓬錄』(1727)¹⁷⁾에 기록된 내용이다. 여기서는 18세기 가장 유명한 역관 중의 하나인 金是瑜의 일화를 담고 있다. 김시유는 1677년생으로 23세(1699)에 역과에 합격했으며, 부친은 四驛院正을 지낸 金應淵이다. 1724년 告訃使兼奏請使를 수행하면서 1725년 영조의 세자 책봉문제, 1727년 史冊辨誣의 일까지 사행의 주요 사안을 능숙하게 해결한다. 때문에 그의 이름은 18세기 주요 연행록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데, 특히 1727년 그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강호부는 부사와 김시유의 대화를 인용하여 史策辨誣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주요한 외교 사안은 관찬 기록 외에도 역관의 傳言과 이를 기술하고자 하는 저자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연행록에 종종 실린다. 18세기 초반 淸과 朝鮮의 居間을 담당한 金尙明의 이야기는 이른바 고급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b는 『정조실록』 1788년 8월 12일자에 실린 역관 洪命福의 手本이다.

16) 『正祖實錄』 권26, 正朝 12년(1788) 8월 12일(辛丑) 2번째 기사, “貴咨官洪命福手本, 言彼地事情. ‘皇帝八旬稱賀, 問於禮部, 則以爲: ‘今年三月下旨, 以五十五年舉行, 四月又下旨, 五十五年, 將幸山東, 瞻禮岱宗, 展謁闕里’ 云. 緬甸國在雲南外極南, 途道甚遠. 今年緬甸酋長, 遣頭目三人, 奉表入貢, 到雲南省, 所貢之物則黃金塔一座, 馴象八隻云. 安南國, 有篡弑之變, 其王妃及世子, 浮海到廣西省請援, 該摠督馳奏, 皇帝大怒, 令廣西摠督, 詳查其變亂之由, 將興師問罪云. 臺灣事, 則今年三月, 逆魁林爽文等八人, 檻致北京, 已爲正法, 出征之福康安海蘭泰等, 進封公爵云.”

17) 이하 앞에서 언급된 연행록에는 서명 뒤에 연도를 부기하도록 한다.

1788년 정사 李在協이 귀국 후 올린 『聞見別單』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1788년에는 한 차례의 사행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재협의 『문견별단』이 홍명복의 수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급변하던 安南國의 정세와 대만의 사변 등 당시 지식인들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홍명복은 1733년 생으로 21세(1753)에 역과에 합격하였으며 대대로 역관을 지낸 譯科名文家 출신이다. 그는 李徽中·洪大容·朴趾源·李德懋·徐浩修 등의 巨學들과 함께 연행하였으며, 이들 연행록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홍명복 등의 역관들이 전한 국제 정세는 명실상부 동아시아 外信 特報였다. 이들이 전한 1차 자료는 1,2년간 이후의 연행사들에게 정세 파악을 위한 주요한 정치 정보가 된다. 가령, 1790년 徐浩修의 『燕行記』를 보면 홍명복 등에게 傳聞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2차적으로 전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관은 사신들에게 있어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요, 귀였다.

위에서 열거한 公務 외에도 연행 노정 중의 지역 정보 역시 역관을 통해 파악되며 전파되기도 한다.

c. 우리나라 사신이 예전에는 玉河館에 머물렀으나 수십 년 전 大鼻獐子에게 빼앗긴 후 乾魚衙洞으로 옮겨 갔는데 그때 人馬가 많이 죽었다. 역관들이 이르길 “우리나라 이름이 朝鮮인데 이 골목의 이름에 ‘고기를 말린다.[乾魚]’라는 뜻이 있기에 인마가 많이 죽는다 하고, 禮部에 呈文을 하니 수년 전에 새롭게 관을 지어주고 이를 南館이라 하였습니다. 또 北館이 있는데 曠節使와 謝使가 동시에 오면 나누어 거처합니다.”라 하였다.¹⁸⁾

d. 北館은 이른바 張天使의 집이었다. 천사는 道家였다. 황제가 저택을 하사하여 북경에 거주하게 하는 한편 관직도 높여주었다. 천사가 죽고 나서 그 아

18) 李義鳳, 『北轅錄』 권3, 1760년 12월 28일, “我使舊住玉河館, 數十年前, 爲大鼻獐子所占, 其後移次於乾魚衙洞, 時人馬適多物故, 譯輩言; ‘我國號朝鮮, 而洞名乾魚. 故人馬之物故以是也. 遂呈文禮部, 數年前新建是館, 此南館也. 又有北館, 節使謝使並到, 則分處云.”

들이 세습했는데, 御史가 규탄하는 바람에 저택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그 저택을 보니, 겹문에 이중벽을 들렀고 행랑채가 매우 넓었으며 좌우전후로 어디나 다 그러하였다. 세 사신이 거처하는 곳은 모두 극도로 화려하였다. 듣자니, 乾魚衚衕으로 이전할 것을 청했을 때 남관과 북관은 손질 중이었다. 역관이 鄭世泰의 집이 근처라는 이유로 두 곳을 놔두고 이곳을 택해놓고는 凶家니 吉地니 하는 설로 구차하게 미봉할 생각이었다고 하니 매우 경악할 일이었다. 이것을 역관에게 똑바로 지적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상인이 집을 세내고 관문 밖에서 대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로 남관을 편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부의 권력자가 중간에서 도모하였을 뿐, 저희는 그 사이에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혹 그럴 법한지는 알 수 없었다.

c와 d는 상호 관련이 있는 일화이다. 먼저 c는 李義鳳의 『北轅錄』(1760)에 기록된 내용으로, 조선 사신들의 숙소가 옥하관에서 乾魚衕에 있는 南館으로 옮겨간 경위와 지명의 유래를 역관에게 전해 듣는 장면이다. 1760년 이의봉의 기록 이후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연행록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언급된다. 대부분의 저자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이의봉은 역관들¹⁹⁾을 통해 전해들은 사실임을 밝혔다. 기실, 건어호동에 관한 기록으로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1734년 黃梓의 『甲寅燕行錄』이 있다. 황재는 1734년 9월 7일자 일기에서 “길을 돌아서 남쪽으로 가고 다시 돌아서 서쪽으로 가다가 乾魚衕에 들어섰다. 【玉河館은 본래 우리나라 사신들이 묵던 관사였다. 근래에 무너지고 퇴락하자 大鼻獐子들이 자원하여 수리하고는 거기에 거처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신들은 건어호동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옥이 넓고 커서 충분히 일행을 수용할 수 있다. 본디 적몰된 가옥이라고 한다.】”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이의봉이 역관들에게 들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연행 시기는 황재가 30년 가까이 앞서므로 그의 傳聞이 이의봉보다 비교적 이른 출처임을 짐작케 한다. 이들이 역관을 통해 들은 건

19) 1760년 당시 이의봉과 함께 연행한 역관으로는 李廷燾(首譯)·邊憲·洪命福·李漾·安世濟·方泰運 등이었다.

어호동의 유래는 朴趾源의 『熱河日記』(1780)나 金景善의 『燕輦直指』(1832)에서도 드러난다.

3) 伴尙

a. 鄭世泰는 북경의 大商이다. 우리나라 사행의 10여만 銀貨가 모두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해마다 그 정도씩 거둬들였다. 정세태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은 武進士가 되었다가 작년에 죽어서 오늘 발인한다고 하였다. 원역들이 누구는 호상하러 누구는 구경하러 전부 나가서 관소가 텅 비었다. 權順性도 무리를 따라 다녀왔다가에 그에게 묻기를, “발인 행렬이 매우 성대했다고 들었다. 너는 보고 들은 대로 죄다 아뢰거라.” 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銘旌을 앞에 놓고 綾緞을 묶어서 용마루를 만들었고 좌우 旒蘇도 능단을 여러 겹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각색 깃발과 전후의 涼傘, 鑷釜, 金槌, 回避肅整牌,各司의 名號牌, 軍官, 戲子, 三絃, 童子를 겹겹이 배열했습니다. 彩輿 3座는 모두 능단을 묶어서 閣을 만들었고 回刺手의 차양, 중간 鎗, 나팔, 鼓吹, 동희자, 白氈鞍馬, 金鞍馬, 金轎, 각사의 파초선이 차례차례 벌여 서고 나서 상여가 떠났습니다. 僧徒는 경을 암송하며 그 왼쪽에 서고 服人, 喪人은 상거 앞에 서고, 喪婦의 白方紬轎는 상거 뒤에 가고, 여러 부녀자의 대여섯 수레가 뒤를 따랐습니다. 護喪客은 모두 문안에서 도성 문안까지 걸어서 따라갔고 음식과 깔 자리를 실은 大車 30여대가 몇 리에 걸쳐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²⁰⁾

b. 권순성이 나가서 향교를 구경했다. …… 권순성과 황상이 하나하나 베껴왔고 또 ‘전각의 제도가 정교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뜰과 섬돌은

20) 黃梓, 『庚午燕行錄』 권1, 1751년 2월 3일, “鄭世泰北京大賈也, 我國使行十數萬銀貨, 盡入其家, 其子爲武進士者昨年死, 今日發柩云. 而譯輩或以護喪, 或以觀光, 盡數出去, 館中空矣. 權順性亦隨喪往來, 余問之曰; ‘聞其柩行甚盛云, 爾須從目見悉陳之.’ 乃曰; ‘銘旌居前, 以綾緞結構爲奠, 左右旒蘇, 右以綾緞疊結爲之. 其次各色旗幟前後, 涼傘鑷釜金槌回避肅整牌各司名號牌, 軍官·戲子·三絃·童子, 重重排列, 彩輿三座, 皆以綾緞結構爲閣, 回刺手·遮日·中錚·叭鼓吹·童戲子, 白氈鞍馬·金鞍馬·金轎·各司芭蕉扇, 次次羅立. 然後喪車方行, 僧徒誦經在其左, 服人·喪人在喪車之前, 喪婦·白方紬轎在喪車之後, 喪婦女五六車隨之. 護喪客都門內皆步從, 飲食·鋪陳所載大車三十餘橫亘數里矣.’”

잡초로 덮여 있고 대들보와 벽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 앉았으니 오랫동안 청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만 하다.'라고 했다. 향교에서 秀才 한 사람이 따라 왔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여 대접할 여력이 없었기에 방의 저쪽 벽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권순성을 시켜 접대하게 했다.²¹⁾

a는 1750년 黃梓가 부사 자격으로 입연하여 기록한 『庚午燕行錄』의 한 부분이다. 황제는 1734년과 1750년 입연하였는데 이때에 權順性이 반당으로 동행하였다. 권순성은(1696~1773) 權尙夏의 아들인 權煜의 서자로 황제의 처남이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공무로 바빴던 황제의 代理見聞을 충실히 수행한다. 『갑인연행록』(1734)이나 『경오연행록』(1750)의 대부분은 권순성이 황제에게 傳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권순성의 耳目을 빌어 낱낱이 追體驗하고 있는데 특히 발인 행렬의 묘사는 권순성의 傳言이라기보다 記述에 가깝다. 문면에는 황제가 그의 말을 '들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草藁를 받아 다시 재가공했음을 추측케 한다. 이러한 경향은 b의 일화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황제가 권순성에게 代理見聞을 맡기면서 요청한 것은 전문 대상의 대략적 면모가 아니었다. 일례로 향교를 방문하면 그 편액을 일일이 적어오라 하였다. 필담 역시 권순성이 대신하게 하였는데, 필담의 내용도 고스란히 황제의 연행록에 기재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正陽門 안에 있는 酒樓에 다녀온 권순성에게 주루의 모습이며, 음식의 종류, 사람들의 動態, 대화의 내용 등을 상세히 묻고는 기록으로 남긴다. 다시 말해, 황제의 직접 전문보다 권순성을 통한 대리전문의 내용이 한층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재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전반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며 19세기까지 이

21) 黃梓, 『甲寅燕行錄』, 권2, 8월 27일, “權順性往見鄉校. …… 權順性與黃裳一瞻來, 且言殿宇制度, 非不精微, 而草沒階庭, 塵壓樑壁, 可知其灑掃之久缺也. 校中秀才隨之者, 而余憊甚無以相接, 賜座於隔壁之炕, 使權順性待之.”

어진다. 代理見聞을 통한 기록은 18,19세기에 걸쳐 고착화된 관행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金景善의 『燕轅直指』(1832)와 『出疆錄』(1851)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c. 聖申이 두서너 同行과 성안에 들어가 두루 돌아보고 와서 말하였다. “성안의 市肆가 성 밖만 못하고, 龍鳳寺가 있는데 작은 사찰입니다. 또한 柔遠館, 일명 朝鮮館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留接하는 곳입니다. 이곳 풍속은 비록 皇親이나 閣老일지라도 행차에 사람을 辟除하지 않습니다. 오직 봉황성 사람들이 우리나라 풍속을 익히 알고 城將의 행차 때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호령하여 내쫓는다고 합니다.”²²⁾

d. 밤에 聖申이 동행 4,5인과 더불어 촛불을 들고 護國寺에 가보고 와서 말하였다. “절은 店舍 뒤 3리쯤에 있는데 별로 볼만 하지 않습니다.”²³⁾

c와 d는 모두 1832년 金景善의 『燕轅直指』에 기록된 내용이다. 黃梓의 대리견문자가 權順性이었다면 金景善에게는 聖申이 있었다. 성신의 호는 翠董, 이름은 魚命義로 김경선과는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이다.²⁴⁾ 1832년 연행 당시 김경선은 서장관이었다. 연행에서 정사와 부사가 주로 儀典을 담당하는 반면 서장관의 임무는 일정의 원활한 진행과 기록이다. 이러한 까닭에 三使 중 그의耳目이 되어줄 반당이 누구보다 필요하며, 이는 대부분의 서장관들에게 해당되는 사례이다. c에서 聖申은 일행과 함께 성안의 시사 및 인근의 명승지를 두루 관람한 후 김경선에게 전달

22) 金景善, 『燕轅直指』 권1, 1832년 11월 24일, “聖申與數三同行, 穿城周覽而歸言; ‘城內市肆, 少遜於外, 而有龍鳳寺, 卽小刹也. 又有柔遠館, 一名朝鮮館, 留接我人之所云. 此俗, 雖皇親閣老, 行不辟人, 而惟鳳城人, 習知我俗, 城將之行, 必呵下我人云.’”

23) 金景善, 『燕轅直指』 권1, 1832년 11월 26일, “聖申與同行四五人, 秉燭往見護國寺, 歸言; ‘寺在店後三里許, 別無可觀云.’”

24) 『燕轅直指』(1832)에서는 어명희가 김경선의 伴尙으로 수행했다는 기록 외에는 인척 사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出疆錄』(1851)에서 김경선이 어명희를 ‘魚戚’이라 언급한 바, 이들이 인척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한다. 黃梓가 權順性의 傳言을 문면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견문의 주체를 확실히 하는 기술방식을 취한다면, 김경선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김경선 역시 魚命羲의 말을 인용하지만, 나머지 세부 사항의 기재는 견문의 주체를 김경선 자신으로 전환하여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원직지』에 수록된 「黃金臺記」·「愍忠祠記」·「聖慈寺記」·「濟州漂人問答記」 등 日錄과 별개로 작성한 기문에서 잘 드러난다. 이 기문들은 魚命羲의 대리견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제주 표인문답기」는 어명희의 기록을 토대로 재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²⁵⁾ 그러나 정작 「제주표인문답기」에는 문답의 주체가 모호하게 처리되어, 일견 김경선이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으로 비춰진다.

e. 試院이 위치를 몰었지만 아는 이가 없었다. 예전에 어척(魚戚; 魚命羲)이 홀로 가본 곳이기 전에 기록이 있다. 이번에 기록을 좇아 찾아보려 하였는데 결국 이전에 보았다는 곳을 찾지 못했다.²⁶⁾

f. 양질(亮姪; 金益亮)과 계명(季命; 邊應圭)가 온정을 보러갔다. 온정은 3층으로 상·중·하 3개의 탕이다. 상탕은 매우 뜨거워서 데일 듯 하고 중탕과 하탕은 모두 따뜻했다. 근처의 다른 물들도 온기가 있었다고 한다.²⁷⁾

e와 f역시 김경선의 기록인데, 이는 1851년 『出疆錄』의 일부분이다. 이때 김경선은 정사의 신분으로 여행했으며 그의 반당으로 金益亮과 邊應圭 두 사람이 동행했다. 1832년에 함께 했던 魚命羲는 이미 故人이 된 상태여서 『출장록』에는 그를 추억하는 대목이 頻出한다. e에서는 이전

25) 金景善, 『燕轅直指』, 1832년 12월 29일, “夜, 招濟州漂人等, 問其始末, 則其所經歷, 多可聞者, 又納一小冊子, 蓋其日記也. 難以真諺, 語無端緒. 使聖申因其所錄, 又以所答而補之, 遂成一通文字. 【別有濟州漂人問答記】”

26) 金景善, 『出疆錄』, 1852년 3월 28일, “問試院所在, 人無知者. 前日魚戚獨往見之, 故有前記. 今欲追尋, 竟不得前日所見.”

27) 金景善, 『出疆錄』, 1852년 2월 18일, “亮姪與季命, 往見溫井. 井三層, 乃上中下三湯也. 上湯熱甚可爛, 中下皆溫, 近處他水, 亦微有溫氣云.”

연행에서 어명희가 홀로 방문한 곳을 찾고자 했지만 끝내 實踏하지 못한 내용이다. 1851년 어명희의 역할을 대신해 준 이들이 바로 김익량과 변응규였다. f는 이들이 濫井을 관람한 후 김경선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이전에 어명희를 보내어 노정 중의 지리 정보를 수집했던 경우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출장록』에서는 김익량과 변응규의 활약이 어명희만큼 돋보이지 않는다. 이는 연행이 김경선에게 두 번째이고, 대부분 1832년 연행에서 어명희의 實踏을 기반으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1832년 김경선의 반당은 아니었으나 『연원직지』를 작성하는데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金進洙가 있다. 그는 『벽로집』(1832) 서문에서

도읍과 궁실·경술·문장·藩國·조공·西山의 등불놀이에서 謠俗의 자질구레한 일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눈과 귀로 접한 것들은 모두 品題·比興·慷慨를 얻었는데 그 뜻이 深遠하였다. 서장관에게 올리니 채록하여 일기로 삼았다.²⁸⁾

라 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서장관은 김경선을 말한다.

이처럼 황재나 김경선의 연행록은 반당의 傳言을 기초로 삼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의 경우는 그나마 대리견문의 주체의 신분, 성명을 밝혔기에 연행록 소재나 기술의 초기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반당이나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연행록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호 부이의봉·홍대용·박지원·이덕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안에서 물고 물리는 대리견문이 있다. 이들은 주로 마두배나 역관들의 전문을 적극 차용하고 이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에 반해 저자가 三使의 신분일 경우에는 거개가 대리견문에 의존해 이를 바탕으로 연행록을 남기며 저자가 특기하지 않는 한 기록의 정보를 제공해 준 반당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

28) 金進洙, 『碧蘆集』 권1, “自都邑·宮室·經術·文章·藩國·朝貢·西山·燈戲, 以至謠俗·細瑣, 苟接於耳目, 皆得以品題·比興·慷慨, 其旨深遠, 輸與三行人, 採取以爲日記.”

한 정황을 감안하다면 여행록에는 한 사람이 아닌 숨겨진 다수의 저자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2. 先行 기록에 의한 영향관계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여행록은 이미 사적인 기행 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다. 기행 문학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노정의 제시, 낯선 곳에서의 旅愁나 客窓感이 뚜렷하게 발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행이란 늘 정해진 경로, 대체로 비슷하게 짜인 동선의 틀에서 진행된다. 때문에 여행 기록의 주체로서는 유일하고 특수한 체험일지라도 읽는 이에게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여정이자 내용이다.

18세기 초, 유연해진 朝淸관계 속에서 여행의 횡수는 늘어났고 여행자의 층도 두터워졌다. 여행을 앞둔 이들은 사전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 여행록을 탐독하는 경향이 드러나며 심지어 휴대하고 국경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타인의 여행록을 통한 追體驗은 낯선 곳에 들어섰을 때 既視感을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의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면에서 金昌業의 『燕行日記』는 노정의 지리 정보와 현지 사정을 담아낸 가장 충실한 여행록의 표본이었다. 여행 전 필독서가 되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표방하는 여행록 저자들이 늘어나면서 답습의 경향성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김경선은 「燕轅直指序」에서 1832년 당대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여행 체험이 기록되었는지 실상과 그 동기를 상세히 기술한다. 이는 여행록 답습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燕京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紀行文을 남겼는데, 그중 3家가 가장 저명하니, 그는 곧 老稼齋 金昌業·澁軒 洪大容·燕巖 朴趾源이다.

史例로 말하면 노가제는 編年體에 가까운데 평순하고 착실하여 조리가 분명하며, 홍담헌은 紀事體를 따랐는데 典雅하고 치밀하며, 박연암은 傳紀體와 같은데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해박하다. 모두 스스로 一家를 이루어 각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이어 기행문을 쓰려는 자가 또한 어떻게 이보다 더 나올 수 있겠는가? 다만 그 沿革의 변경으로 기록이 자연 맞지 않고, 踏襲의 相避로 자상함과 간략함이 간혹 현격하다. 참으로 두루 찾아보고 이리저리 대보며, 서로 참고하여 절충하지 않으면 그 요령을 얻을 수 없으니, 보는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결점으로 여긴다.

임진년에 내가 三使 중의 한 사람으로 뽑혀 7개월에 걸쳐 다녀왔는데, 山川, 道里, 人物, 謠俗 및 고급 사실의 수집할 수 있는 것과, 使行 일의 시말 및 언어 문자 중에 상고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 모으고, 따라서 즉시 기록하였다. 체제는 위 3가에 준하여 각기 그 한 가지 체책을 취하니, 즉 노가제가 날[日]을 달[月]에다 붙이고 달을 해[年]에다 붙인 것과, 담헌이 사항마다 본말을 갖춘 것과, 연암이 간혹 자기 의견으로 말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연혁에 있어 예와 지금이 서로 다른 것은 갖추어 그 전말을 기술하여 보는 사람의 의심이 풀리게 하고, 피차 踏襲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전인들의 말 그대로 써서 전인들로 하여금 그 美를 차지하게 하였거니와, 그 표현이 장황하여 語句의 세련을 요하는 것은 바로 전 분들의 기술이 이미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찌 나의 역량으로 미칠 바이겠는가?

그러니, 醫術家에 비하면, 이것은 마치 여러 의술가의 학설을 모아 종합하여, 증세에 따라 방문을 낸 直指方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책이 완성되자 『연원직지』라 이름 붙이니, 모두 여섯 권이다.

뒤에 이 使行 길 가는 사람이, 辭陞로부터 復命할 때까지 언제나 일을 당하여 상고하고, 장소에 따라 참고하여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길을 안내하게 된다면, 혹은 그 간편함을 자랑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²⁹⁾

29) 金景善, 「燕轅直指序」,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 湛軒洪氏, 燕巖朴氏也. 以史例則稼近於編年, 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 而典雅縝密, 朴類夫立傳, 而瞻麗闊博, 皆自成一家, 而各擅其長, 繼此而欲紀其行者, 又何以加焉. 但其沿革之差外, 而記載隨而燕郢. 踏襲之互避, 而詳略間或逕庭, 苟非遍搜旁摭, 以相參互而折衷之, 則鮮能得其要領, 覽者多以是病之. 歲壬辰, 余

김경선은 위와 같이 연행록 작성시 피차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에 수반되는 장단점을 설명한다. 특히 답습의 대상이 되는 노가재·담헌·연암의 연행록을 3대 연행록이라 高評하였는데, 이는 18,19세기의 연행록의 체제나 구성이 이들 三大家 연행록 기술 방식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김경선 스스로 전대의 연행록을 답습하였음을 자인한다. 실제로, 『연원직지』는 대부분의 내용을 『연행일기』, 『연기』, 『열하일기』에서 채록하였으며, 여기에 반당인 聖申 魚命羲를 통한 代理見聞이 덧붙여지는 형식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712년 김창업의 『연행일기』는 명실상부 가장 널리 인용된 텍스트이다. 하지만 1765년 홍대용의 『연기』가 저작되기 전까지 그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텍스트들도 많다. 李器之의 『一菴燕記』(1720), 姜浩溥의 『桑蓬錄』(1727), 黃梓의 『甲寅燕行錄』(1734)과 『庚午燕行錄』(1751), 李義鳳의 『北轅錄』(1760)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연행일기』의 답습 및 실증, 수정, 보완을 거친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답습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견문하여 실증한 것을 토대로 수정 보완함은 물론, 각종 지리서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장시킨 경우도 적지 않다. 주로 19세기 연행록에서 그 경향성이 두드러지는데, 李海應의 『薊山紀程』(1803), 李永得의 『燕行雜錄』(1822), 朴思浩의 『心田稿』(1828), 金景善의 『燕轅直指』(1832) 등은 이점을 충실히 반영한 것들이다. 특히

充三行人，七閱月而往還，山川道里，人物謠俗，與夫古今事實之可資採摭者，使事始末，言語文字之間，可備考據者，無不窮搜而悉蓄，隨即載錄，而義例則就準於三家，各取其一體。卽稼齋之日繫月月繫年也，湛軒之卽事而備本末也，燕巖之間以己意立論也。至於沿革之古今相殊處，備述其顛委，爲覽者釋疑，蹈襲之彼此難免處，直書其辭意，俾前人專美，若夫張皇鋪敘，求其辭句之工鍊，則非直前述已備。又豈自量所及，然則比之醫家，此不過集諸家說而隨證立方，如直指方耳。故書成而名之曰燕轅直指。凡六卷，後之有此行者，自辭陞暨反面，無日不臨事而攷閱，對境而參證，有如指掌之按行，則或可謂其簡便，而不爲無助也否。”

이영득의 『燕行雜錄』은 답습과 확장에 있어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 踏襲

상술한 바와 같이 전대 연행록을 탐독하고 채록하며 일부 답습하는 과정은 연행록 작성에 있어 필수에 가까운 일이었다. 연행 노정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며, 연행록의 체제 역시 답습의 대상이 되었다. 김창업의 『연행일기』가 日錄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³⁰⁾라 한다면 『연기』나 『열하일기』는 그 기본 형식을 해체하고 작자가 재구성한 경우이다. 이는 작자의 개성이 두드러져 『연행일기』를 답습하는 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이 18세기 연행록 중 가장 인구에 회자되었으며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내용이나 체제를 답습함에 있어 출전, 즉 답습의 대상이 되었던 텍스트를 밝히는 저자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저자들도 상당하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전대 연행록의 답습은 일반화되어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더욱 늘어난다. 이에, 양적으로는 巨帙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여러 연행록들을 짜깁기한 인상을 주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18,19세기 답습의 관행이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 몇몇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상봉록』(1727)이 『일암연기』(1720)의 내용 일부를 채용한 사례이다. 답습 여부와 그 빈도 파악을 위해 원문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a. 『일암연기』에 이르길, 송산보는 명나라 장수 祖大樂이 지키다가 함락을 당했던 곳이다. 조대락과 洪承疇가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 한스럽다. 조대

30) 金昌業의 『燕行日記』(1712)는 날짜를 순차적으로 적은 日錄과 一行人馬渡江數, 方物歲幣式, 鴻臚寺演儀, 山川風俗總錄, 往來總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락이 훗날 온 힘을 다하여 싸우다 죽으려 하였지만, 결국 무릎 꿇고 항복한 치욕을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 하였다. 이 기록과 다소 다르지만 우선 그것을 기록하여 참고로 삼는다.

[按『一菴燕記』云, 松山堡, 明將祖大樂所守而被陷處也. 大樂及洪承疇, 皆被屈, 可恨. 大樂後欲有爲力盡而戰死. 然不足洗兩膝之恥云. 與此記少異, 姑錄之以備參考.] <1727 강호부, 『상봉록』, 12월 15일>

b. 송산보에 도착하니 성가퀴는 무너지고, 北城쪽만 조금 남아 있었다. 譙臺 하나가 홀로 우뚝 서 있었다. 인가는 남은 것이 별로 없고 사방으로 거친 풀만 무성하게 뒤덮고 있었다. 庚辰年(1640)과 辛巳年(1641) 사이에 대룡하·소룡하와 송산·행산보 두 지역의 성에서 모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끝내는 도륙의 참혹함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으며, 성을 부수어 허물어 버리기 까지 하였다. 이곳 백성들의 삶은 잔혹하게 망가져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성은 곧 명나라 장수 祖大樂이 지키다가 함락을 당했던 곳이다. 조대락과 홍승주가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 한스럽다. 조대락이 훗날 온 힘을 다하여 싸우다 죽고자 하였지만, 결국 무릎 꿇고 항복한 치욕을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至松山堡, 城堞頽圮, 北城略存, 有一譙臺巋然獨存, 人家殘少, 四面荒草蕪沒. 庚辰·辛巳之際, 大小陵河及松杏兩城, 皆百戰之場, 而末稍屠戮之慘, 及於兒童, 至於掘城而夷之, 故此處人民之殘破, 至今未蘇, 可傷. 此城乃明將祖大樂所守而被陷之處也. 大樂及洪承疇皆被屈, 可恨. 大樂後欲有爲力盡戰死, 然不足洗兩膝之恥矣.] <1720, 李器之, 『一菴燕記』, 권2>

李器之의 『一菴燕記』는 18세기 초 연행록 가운데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1720년 숙종의 서거를 알리는 告訃使行에서 노론 사대신 중 한 사람이었다던 李頤命이 正使로 입연하는데, 아들 이기지가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수행하였다. 그 당시 일체의 견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일암연기』이다. 『일암연기』는 김창업 『연행일기』의 가장 모범적인 계승자라 할 수 있다. 『연행일기』의 내용 가운데 노정에서 傳聞한 지역 관련 설화나 전설 등이 매우 다채롭게 취합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암연기』는 『연행일기』가 표방한 글쓰기 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자신의

경험 및 배경지식과 교직시킨 후 범주를 확장하는데 一助한 공이 있다.³¹⁾ 이는 당대 연행록뿐만 아니라 후대의 연행 노정 견문을 구성하는 주요한 話素로 작용한다.

a와 b의 예문은 명나라 요동 지역 장수였던 祖大樂·祖大壽 일화인데 연행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조대락은 명칭 교체가, 洪承疇와 함께 산해관을 나와 ‘송금의 전투’에서 패배해 포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a에서 제시한 강호부의 『상봉록』에도 祖大樂 관련 일화가 실려 있으며 이를 『일암연기』에서 채록했다고 밝혔다. 강호부 『상봉록』은 원전이었던 한문본 연행록이 화재로 逸失되어 낙질이었던 한글본을 토대로 증손자인 姜在應이 漢譯하여 엮은 것이다. 때문에 연행록 중에 ‘按~云’이라 하여 한역자이자 편집자인 강재응이 참고한 선대의 연행기록, 각종 지리서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a 역시 그 일환이다. 강호부가 기록한 일화가 『일암연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출처를 밝히고 인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강호부가 이기지의 연행 기록을 접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상봉록』에서 『일암연기』의 일부를 직접 인용한 주체는 강호부가 아닌 강재응이라 할 수 있다.

기실 『일암연기』는 김창업의 『연행일기』를 능가하는 고증적 글쓰기와 청나라의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의 풍부한 내용과 西洋文物을 바라보는 열린 시선 등으로 고품 받는 텍스트였음에도 저자의 불행한 죽음³²⁾과 관련하여 김창업의 『연행일기』만큼 선호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1725년 이기지가 신원되기까지는 그의 연행 기록이 완

31)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박성호, 「연행록의 전설 수용 양상과 『일암연기』의 글쓰기 방식」, 『온지논총』 49집, 온지학회, 2016, pp.201-227 참조.

32) 이기지(1690~1722)는 연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1721년, 아버지 李頤命이 세제책봉을 건의하다가 陸虎龍의 무고로 거제도도로 귀양하게 되고 그 역시 연루되어 남원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서울로 압송, 의금부에 투옥되어 고문 끝에 죽었다. 1725년 신원된 후, 1759년 아들 李鳳祥이 그의 연행 유고를 정리하여 펴낸 것이 바로 『일암연기』이다.

정한 텍스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호부의 연행 기록은 김창업의 『연행일기』(1712)와 이기지의 연행 기록(1720)의 磁場 안에 있기에 그 영향관계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은 연행록의 서목을 밝히지 않은 채 그 체제와 내용을 답습한 사례이다.

c. 淸人은 모두 漢語에 능숙하지만 漢人은 淸語에 능숙하지 못하며, 淸語에 능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淸語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淸語에 능통하지 못하면 벼슬길에 오르는 데 방해가 된다. 궁궐이나 衙門에서 모두 淸語를 쓰고 奏御文書도 淸語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여항에서는 淸人和 漢人을 막론하고 모두 漢語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淸人 중에서도 淸語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황제가 염려하여 총명한 어린 사람을 선발하여 寧古塔으로 보내서 淸語를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

〔淸人皆能漢語，漢人不能爲淸語，非惟不能，亦不樂爲。然不通淸語，有妨仕路。關中及衙門，皆用淸語，奏御文書，皆以淸書繙譯故也。閭巷無論淸漢人，皆用漢語。以此淸人多不能淸語。皇帝患之，選年少聰慧者，送寧古塔學淸語云。〕<1760, 이의 봉 『北轅錄』 권1, 「山川風俗總論」>

d. 淸人은 모두 漢語에 능숙하지만 漢人은 淸語에 능숙하지 못하며, 淸語에 능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淸語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淸語에 능통하지 못하면 벼슬길에 오르는 데 방해가 된다. 대개 궁궐이나 衙門에서 모두 淸語를 쓰고 奏御文書도 淸語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여항에서는 淸人이나 漢人이나 모두 漢語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淸人 자손이나 어린이는 淸語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황제가 염려하여 총명한 어린 사람을 선발하여 寧古塔으로 보내서 淸語를 배우게 하였다.

〔淸人皆能漢語，而漢人不能爲淸語，非不能也，不樂爲也。然不能通淸語，於仕路有妨。蓋關中及衙門，皆用淸語，奏御文書，皆以淸書繙譯故也。閭巷則滿漢皆用漢語。以此淸人後生少兒，多不能通淸語。皇帝患之，選年幼聰慧者，送寧古塔學淸語。〕<1712, 김창업 『燕行日記』, 「山川風俗總錄」>

이의봉의 『북원록』은 18세기 연행록 가운데 가장 풍부한 지식정보를 담고 있다. 日錄형식을 유지하며 「山川風俗總論」을 별도로 구성했는데, 이는 김창업 『연행일기』의 「山川風俗總錄」을 답습한 것이다. c와 d는 각각 이의봉과 김창업의 淸語와 漢語에 관련한 기록이다. 제시한 예문에서 그 내용이 몇 글자의 出入을 제외하고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c의 예문 말미에 ‘云’자를 붙여 傳聞한 내용임을 표기하였으나 그 출처가 『연행일기』임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채록한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옮겨온 경우이다.

e. 장가 들지 않은 漢人은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땡아서 뒤로 늘어뜨리고, 장가 들면 반드시 한 가닥으로 하는데 滿人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두 가닥으로 땡은 辮子는 보지 못했으니 과연 그러한지는 모르겠다.

[漢人未娶者, 編二髮而垂其後, 娶親然後必一髮, 滿人則不然云, 而未見二髮之辮子, 不知其果然.] <1842, 조봉하 『연계기략』 권4, 雜錄, ‘男女’>

f. 내가 甜水站을 지날 적에 劉氏 姓을 가진 아이를 보니,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땡아서 뒤로 늘어뜨렸다. 내가 그 까닭을 묻자, 유씨는 “장가 들지 않은 漢人은 으레 다 이와 같이 하고, 장가 들면 반드시 한 가닥으로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余過甜水站, 見劉姓兒, 首編二髮而垂其後. 余問其故, 劉曰; “漢人未娶者, 例皆如此, 娶親則必一髮.”] <1803, 이해응, 『계산기정』 권5, 附錄, ‘風俗’>

e는 趙鳳夏의 『燕薊紀略』이며 d는 李海應의 『薊山起程』이다. 조봉하는 19세기 세도가였던 풍양 조씨 일문으로 부친은 趙秉鉉이며 1842년 서장관에 임명되어 입연하였다. 그는 『燕薊紀略』을 4권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필사본 3책(권1, 권3, 권4)만 전해진다. 『연계기략』은 일록에 雜錄³³⁾을 追記한 형태이다. 19세기 연행록은 시간과 노정을 순차적으로 기

33) 趙鳳夏 『燕薊紀略』의 잡록에는 山川·茶藥·科宦·道路·穀種·婚喪·城闕·魚肉·

술한 단순한 체제에서 진일보하여 人馬總數, 歲幣方物, 表咨文 일체를 수록하는 한편 청대 풍속을 別錄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보편적 추세였다. 특히 1803년 李海應의 『薊山紀程』은 그 중심에 위치한다. 조봉하의 『연계기략』 잡록은 이해응의 『계산기정』 부록과 상당부분 흡사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강호부·강재응의 방식과는 달리 차용한 텍스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화’시킨다. 이는 이의봉이 김창업의 기록을 답습함에 있어 출처는 밝히지 않더라도 원문의 배치는 거의 훼손하지 않는 방식과는 또 다른 층위이다. e는 조봉하가 滿·漢 男女의 머리 모양에 대해 묘사한 것인데, f의 기록 일부를 그대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f는 이해응의 직접 경험한 일화가 복식 묘사의 근간이 되었던 반면, e는 f의 내용을 차용하면서 원 저자의 경험은 제외시키고 일반화 시킨다.

g. 남자는 나이 20 이전에는 그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모두 깎아 버리고, 25세 이후에는 구레나룻만 깎고 턱수염은 남겨 두며, 30세 넘은 이후에는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모두 깎지 않는다. 다만 천한 자들은 비록 60, 70세의 노인일지라도 거추장스러운 것을 괴로워하여 혹 그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모두 깎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나면서부터 머리를 깎고 오직 한 움큼의 털만 남겨 두어 뒤 꼭지에다가 땀아 늘이니 이를 변자라 한다. 비록 나이가 많아 허연 자라도 등 뒤에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 어린아이와 같다. 승려는 변자까지 아울러 깎고 도사는 머리를 깎지 않고 묶어서 상투를 틀기도 하고 혹 흐트러 늘어뜨리기도 한다.

[男子年二十以前, 并剃其鬚髻, 二十五歲以後, 則只剃髻而存鬚, 若過三十, 則鬚髻并不用剃. 但賤者則雖六七十老客, 苦其爲癢, 或多有盡剃其鬚髻. 男子生而薙髮, 獨留一掬髮, 辮於腦後, 是謂辮子. 雖年老髮白者, 從背後視之, 亦似我國嬰兒. 僧則并辮子薙之, 道士不薙髮, 而或束爲髻, 或散而垂之.] <1842, 조봉하 『연계기략』

風俗·宮室·柴炭·畜物·寺廟·器用·胡藩·耕稼·舟車·衣服·男女·飲食·言語·菜果·儀禮 등 23항목을 기술했다. 이는 李海應의 『薊山紀程』과 상당히 유사한 체제이다. 참고로, 『계산기정』 부록은 行總·報單·沿邑·官衙·歲幣·食例·賞賜·公役·道里·山川·城闕·宮室·衣服·飲食·器用·舟車·風俗·科制·畜物·言語·胡藩·貢稅 등 22항목이다.

』 권4, 雜錄, ‘男女’>

h. 남자는 나서부터 머리를 깎고 오직 한 움큼의 털만 남겨 두어 뒷꼭지에다가 땀이 늘이니, 이것을 辮子라 한다. 비록 나이 많아 머리가 허연 자라도 등 뒤에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 어린아이와 같다. 승려[僧]는 辮子까지 아울러 깎아 버리고, 道士는 머리를 깎지 않고 묶어서 상투를 틀기도 하고 흐트러 늘어뜨리기도 한다. …… 남자는 나이 20 이전에는 그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모두 깎아 버리고, 25세 이후에는 구레나룻만 깎고 턱수염은 남겨 두며, 30세 넘은 이후에는 모두 깎지 않는다.

[男子生而薙髮, 獨留一掬髮, 辮於腦後, 是謂辮子. 雖年老髮白者, 從背後視之, 亦似我國嬰兒. 僧則并辮子薙之, 道士不薙髮, 而或束爲髻, 或散而垂之. …… 男子年二十以前, 并剃其鬚髻, 二十五歲以後, 則只剃髻而存鬚, 過三十以後則畵.] <1803, 이해응, 『계산기정』 권5, 附錄, ‘風俗’>

g와 h역시 조봉하의 『연계기략』과 이해응의 『계산기정』의 청나라 남녀 복식에 관한 기록이다. g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봉하는 이해응의 기사를 취할 때 본래 연이어 기술되지 않았던 단락을 연결시켜 ‘남성’복식이라는 일관된 맥락으로 재구성했다. 그가 참고한 이해응의 『계산기정』에는 남자의 변발 및 수염을 깎는 내용 사이에 여성의 머리 모양이 함께 잇달아 설명해 놓았다. 즉, 남자의 변발->여성의 纏足->남성이 수염 모양이 본래의 기사 순서라면 조봉하는 남자의 변발-> 남자의 수염 모양->여성의 纏足 순으로 재배열한 것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답습하되, 기술하려는 주제의 맥락과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배열을 달리한 것은 다분히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

한편 답습한 부분의 출처를 소급해 나가보면, 세기에 걸쳐 같은 내용을 반복해 모방·채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이 그 예시이다.

- 1차 출전: 이른바 ‘柔薄兒’라는 것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상화떡처럼 맛불인 곳이 주름지니, 우리나라의 만두와 흡사하다. 이것은 옛 만두로

돼지고기와 마늘을 다져서 만들며 그곳의 떡 중에서 가장 맛이 있었다.

[所謂柔薄兒，以麵造，似我國霜花，而皺其縫，似我國饅頭。此蓋古之饅頭也，其啗猪肉和蒜爲之，彼處餅餌中味最佳。]<1712, 김창업, 『燕行日記』, 「山川草木總錄」>

• 2차 출전: 이른바 柔薄兒라는 것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상화떡 [霜花餅]과 같은 것으로서 그 맞붙인 곳[縫]이 주름져 있다. 이는 옛날의 만두로 돼지고기를 다져서 마늘과 섞어 채우니, 떡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所謂柔薄兒，以麵造之，如我國霜花，而皺其縫。蓋古之饅豆也，其餡以猪肉和蒜以實之，餅餌中最佳。]<1803, 이해응, 『계산기정』 권5, 附錄, ‘飲食’>

• 3차 출전: 이른바 柔薄兒라는 것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상화떡 [霜花餅]과 같은 것으로서 그 맞붙인 곳[縫]이 주름져 있다. 이는 옛날의 만두로 돼지고기를 다져서 마늘과 섞어 채우니, 그곳의 떡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所謂柔薄兒，以麵造之，而皺其縫。蓋古饅頭也，其餡以猪肉和蒜以實，彼地餅餌中味最佳者。]<1842, 조봉하, 『연계기략』 권4, 雜錄, ‘飲食’>

위의 예문은 1차 자료를 답습한 2차 자료, 2차 자료를 답습한 3차 자료이다. 조봉하는 ‘유박아’를 기록하면서 이해응의 『계산기정』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김창업의 『연행일기』도 참조·비교하여 채록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역시 몇 글자의 출입을 제외하고는 원문이 거의 일치하여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기록인 듯하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자료의 누적으로 2차, 3차 답습 현상이 벌어진다. 이해응과 朴思浩는 김창업 이후 18세기 연행록의 장점을 가장 모범적으로 답습하고 ‘자기화’시켜 정련된 체제로 써내려갔기에, 많은 작자군들이 이를 재 답습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 잘 정리한 개요서로 간주한 셈이다. 이를 중심으로 자신이 직접 목도한 이국의 풍광과 이에 대한 인상비평, 그 당시 경험했던 자잘한 일화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연행록을 완성한 것이다.

2) 敷衍(확장을 겸하여)

연행록 저자들이 전대의 연행록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를 요즘의 ‘剽竊’과 등치시킬 수 없는 이유 또한 존재한다. 표절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승인이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베끼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물론, 이 이론적 함의를 18,19세기 술한 연행록에 적용시킨다면 어느 한 작품도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찾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유럽에서 역시 18세기적 문학관을 거론할 때에 앞선 작가들을 모방하고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니 연행록의 답습도 괴이할 것은 없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건강부회일까? 답습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著者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만일 이전 연행록의 무조건적 모방 및 수용을 비판하고 작품의 창의성과 개성에만 기준을 맞춘다면 19세기 연행록 대부분은 가치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연행 기록의 답습 관행이 유의미하다는 단서는 답습을 넘어 그 부연과 확장이라는 지점에 있다.

이의봉은 『북원록』(1760)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떠나게 되자 『日下舊聞』³⁴⁾ 한 책을 초록하여 행장을 넣는 자루에 넣었으니 장차 이것을 살펴서 燕都를 두루 구경하려는 것이었다.

이의봉의 『북원록』이 김창업의 『연행일기』의 계보를 이으며 많은 부

34) 『日下舊聞』: 청나라 朱彝尊이 찬한 것으로, 42권이다. 北京의 古事와 舊聞을 각종 서책 가운데서 찾아 모아 찬집하였으며, 原書의 이름을 수록하였다. 북경의 지리와 연혁, 典章制度까지 아울러 상세히 기록했다. 당시로서는 가장 방대하고 완벽했던 북경 지방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주이존이 강희제 때 등용되었다가 貶官 된 뒤 지은 것인데, 명의 멸망에 대한 비통함을 글에 기탁해 절개를 굽히고 정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배격하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주이존의 학술적 역량과 宣南文化에서 받은 영향, 반청사상, 명철보신의 처세 철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을 바탕으로 건륭 연간에 『日下舊聞考』가 찬수되었다.

분을 참조하고 답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연행에 앞서 김창업의 『연행일기』를 정독했음은 물론, 귀국 후 연행기록을 정리하면서 다양한 지리서와 백과전서를 참조하여 『북원록』을 완성한다. 특히 『日下舊聞』은 그가 연행 노정의 지리 정보를 철저히 고증하기 위해 지참하고 다닌 것인데, 이 외에도 『一統志』, 『職方外紀』, 『坤輿圖說』, 『帝京景物略』, 『廣輿記』, 『淵鑑類函』, 『燕山叢錄』, 『輿地勝覽』, 『高麗史』, 『仙傳拾遺』, 『方輿紀要』, 『安南雜記』, 『中山記略』 등과 각종 縣誌까지 주요한 자료만 간주려도 수십 종에 달한다. 일례로 『직방외기』를 초록하면서 중간 중간 南懷仁의 『坤輿圖說』을 교직해 놓는다. 이는 무작위의 도용이나 답습이 아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록행위라 간주할 수 있다.

그가 『일하구문』을 抄錄하여 행장에 넣고 연행을 떠났다는 의미는 적극적이고도 정확한 견문에 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직접 견문하고 실증한 것을 토대로 기존 기록을 수정, 보완함은 물론 각종 지리서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장시키는 준비 단계였던 것이다.

a. 漏澤園에 오니 무덤이 층층하며 앞에 돌문을 만들어 세워 ‘누택원’이라 새겼다. 누 집 분묘인지 알 수 없지만 風水가 꽤 좋았으니 대개 大窩³⁵⁾였다.³⁶⁾
<1712, 김창업 『노가제연행일기』>

b. 3리를 행하여 漏澤園을 지나니 漏澤의 설립은 宋 神宗의 可陳向이 백성 중에 장사를 지낼 수 없어 무덤이 없는 자들에게 지어달라는 주청을 드린 일이 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元과 明과 淸이 이어서 모두 따랐으니, 크고 작은 州와 邑에 없는 곳이 없었다. 金昌業은 풍부한 견문을 스스로 자랑했는데 그 일기에 미쳐서는 누구의 무덤인지 모른다고 하였으니 博古의 어려움이 이와 같다.³⁷⁾<1760, 이의봉 『북원록』>

35) 大窩: 풍수객들이 묘자리를 窩 鉗乳·突로 나누는데, 窩에는 대소의 窩가 있다. 大窩는 窩穴의 자리가 커서 묘를 많이 쓸 수 있는 명당이다.

36) 金昌業, 『燕行日記』, 1712년 12월 20일, “過漏澤園, 有塚累累, 前立石門, 刻曰漏澤園, 未知誰家墳山, 風水頗好, 蓋大窩也.”

37) 李義鳳, 『北轅錄』 권3, 1760년 12월 21일, “三里過漏澤園, 漏澤之設, 肇自有

a와 b는 답습의 대상이 된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 보완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창업이 밝혀내지 못했던 누택원의 분묘 설립 과정을 이의봉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밝혀내는데, 그는 말미에 ‘博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의봉의 『북원록』이 『연행일기』의 상당부분을 채록하였다는 점은 명징하지만, 위의 예시는 그 이유를 동시에 설명해주고 있다. 『연행일기』의 답습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검열의 방법으로서 불가피했던 것이다. 기존 연행록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기록을 답습하면서 實踏한 내용과 同異의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기록의 수정, 보완 및 확장으로 이어진다. 『북원록』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충실하다. 타인의 창의적 소재와 구성을 훑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보 확인 차원에서 이전의 연행록들을 풍부하게 참조하여 그 차이만큼 정보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답습’이라는 과정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회 이상의 연행을 경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연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한편의 연행록을 남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매회 연행록을 남기는 이도 있다. 김경선은 1832년과 1851년 두 차례의 연행 체험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c. 영수사에 이르러 머물렀다. 부사와 서장관, 그리고 일행 가운데 초행길인 여러 사람들이 서쪽으로 우회하여 1리를 행한 후 신요동에 이르러서는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왔다. <주: 이전의 기록이 있다.> 성 안은 市肆였는데 인가가 즐비하고 화려하였으니 10개의 봉황성이라도 비할 수가 없었다. 서문 밖에는 관제묘가 있었으며 <주: 이전의 기록이 있다.> 또 북쪽으로 1리쯤 가니 백담과 여러 절들이 있었다. 김익량과 변응규 또한 구경을 하고 돌아와 굉장하다며 떠들어댔다. **모두 이전해 행했던 곳과 같은데, 단지 관제묘가 도광 무술년 5월에 비석을 세우고 중수하였으며 단청도 새로 칠하여 전보다 한결 나아졌**

宋神宗可陳向之奏，建以葬民之死而無塋者，元明清皆因之，大小州邑莫不有焉。金昌業以多聞自詡，而及其記行，以爲不知爲誰家墳，博古之難。”

으나 백담은 자못 낡고 허물어졌다고 했다. 영안사와 광우사는 날이 거의 저물었기에 미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책문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를 동팔참이라 한다. <주:이전의 기록이 있다.> 전문한 바가 전에 기록했던 바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었다.³⁸⁾

d. 강녀묘추록: 이전의 연행시에 행궁과 강녀묘의 모습이 모두 화려하였는데 지금 보니 퇴락함이 너무 심하다. 단청은 다 벗겨지고 담장과 기와 또한 무너지고 부서져 있었는데 단지 돌로 만든 소장만이 여전하였다. 그때는 바빠서 시구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 추록한다.³⁹⁾

c와 d는 김경선의 『출강록』(1851)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출강록』은 첫 연행록인 『연원직지』(1832)보다 내용과 분량이 소략한 편이다. c에서 언급했듯이 연행 노정의 지역 정보는 대부분 『연원직지』에 記文 형태로 남겼기 때문에 주를 첨가하여 “이전의 기록이 있다[前有記]”라 하고 더 이상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반면, d에서와 같이 20년 전에 바뀐 일정으로 인해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시문·비문·주련의 문구 등은 追記의 형태로 보완하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 또한 기록한다. 이는 타인의 연행록을 통한 실증이 아닌 스스로의 기록을 보완하고 확장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대의 누적된 연행 기록을 답습, 부연, 확장시킨 가장 대표적인 예는 1822년 연행한 李永得의 『燕行雜錄』이라 할 수 있다. 이영득⁴⁰⁾은 서장관

38) 金景善, 『出疆錄』, 1851년 2월 24일, “至迎水寺十里止宿, 副三房與行中初行諸人, 迂西作行一里, 至新遼東, 由東門入, 西門出.[有前記] 城內市肆, 人戶櫛比侈麗, 以十鳳城不可比擬. 西門外有關帝廟.[有前記] 又北行里許, 有白塔與諸寺. 亮姪與季命亦從觀而歸, 盛言宏壯, 皆如前行, 而但關廟道光戊戌五月吉朝立碑重修, 丹青之鮮新, 似勝於前, 而白塔頗頽弊云. 永安寺, 廣祐寺迫昏未及歷觀云. 自柵至此, 謂之東八站.[有前記] 所見所聞, 別無殊異於前行所記.”

39) 金景善, 『出疆錄』, 1851년 2월 25일, “姜女廟追錄; 前行時行宮及廟貌, 俱華麗, 今見頽敗頗甚. 丹青剝落, 垣壇築輒, 亦多破壞, 而但石面塑像如前. 其時忙未記之詩句, 今茲追錄.”

40) 저자에 관한 고증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다. 『燕行雜錄』은

이었던 徐有素의 반당으로 수행했던 인물이다. 1822년 10월에 출발하여 1823년 2월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과 각종 지식정보를 연행록에 담았는데, 총 16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內篇(1권~8권)과 外篇(9권~16권)으로 구분된다. 19세기 연행록 가운데 가장 巨帙이며 수록한 정보는 그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지면 관계상, 각 권의 개요를 통해 18세기~19세기 초반에 이르는 답습과 부연 및 확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권~5권: 이 연행록의 總論격으로, 燕京의 문물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해놓았다. 기존의 연행록이 ‘別錄’ 형태의 세부 항목 없이 하나로 구성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류, 기록하였으며 博物志적 성격 또한 드러난다. 연경의 建置沿革, 宮闕, 樓亭, 學院, 遺蹟, 祠廟, 坊巷胡同, 寺刹, 山水 등을 총 망라했다. 저자는 『日下舊聞』을 비롯한 각종 地理志 등을 참조하여 이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6권~8권: 실질적인 연행록, 즉 1822~1823년 당시 연행 노정에서의 경과를 日錄 형식으로 정리한 부분이다. 청조 지식인들과의 필담, 琉球 사신과의 필담 등도 상세히 수록했다. 특히, 저자 스스로 필담은 별록으로 구성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현재 16권 16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동행했던 정사 金魯敬과 자제관관으로 동행한 山泉 金命喜를 비롯해 그들의 반당이었던 金善臣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 이들이 19세기 조선의 주요한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자료의 가치는 倍加된다.

당시 서장관으로 사행했던 徐有素의 기록이라 알려졌으나 이는 오류임이 밝혀진 상태이다. 그러나 내용 가운데 청조 문인과 나눈 필담 속에서 저자가 李氏이며, 나이는 38세, 호는 樗谿임을 밝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로써 서장관의 반당이었던 ‘李永得’이라는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 9권~13권: 연행외편으로, 실제 1823년 연행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그러나 중국과 異國의 풍속지리를 망라, 중국의 각 지리지를 참조하여各省의 지리정보는 물론 異國 지리정보를 수록했으므로 가치가 있다. 9권~12권은 중국 각성의 지리정보이며, 13권은 전체가 日本에 대한 기록이다. 이 부분은 申維翰의 『海遊聞見別錄』(일명 『海遊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 외에도 남용익의 『倭皇代序』와 이덕무의 『蜻蛉國志』 또한 참조한 흔적이 보인다. 14권은 중국 이외 異國 각지의 풍속지리를 담았다. 중앙아시아 각국과 서유럽,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룬다.

• 15권~16권: 燕京과 관련한 中國의 역대 漢詩, 詞가 수록되어 있다. 16권은 『燕都記聞』, 『清代諸儒文評』으로 燕京에 관련한 明清 작품과 『四庫全書』 摠目提要 발췌로 구성되었다.

이영득의 『연행잡록』은 19세기 연행 기록 방식의 방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행 외편의 내용과 구성이다. 즉, 9권~16권은 연행록이 담고 있는 정보의 확장성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아울러, 異國 풍속을 상세히 기록하고 연경과 관련한 명칭 詩文評까지 수록한 데에는, 당대의 연행록이 더 이상 지역 정보를 담고 있는 尋常한 紀行文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 연행은 곧 해외 체험이며 이를 실마리로 중국 이외의 異國까지 독자로 하여금 追體驗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작자의 의도가 존재하는 아닐까.

18,19세기 연행 노정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시대와 연행자의 층위가 달라짐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확인과 검열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답습은 첫 번째 단계이며 부연과 확장은 답습을 거쳐 재확인 된 그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다. 저자가 후대 연행자의 입장을 고려하는가, 아니면 간접 체험에 의미를 두는 독자를 겨냥하는가에 따라 연행의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전자라면 답습, 그리고 재확인, 부연과 확장으로

그 경향을 보일 것이며 후자라면 독특한 체제, 기존과는 다름에 방점을 둘 것이다. 어쩌면 정보전달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자료로서 ‘부연’과 ‘확장’만큼 신뢰가 가는 것이 또 있을까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을 모든 연행록에 적용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다. 그러나 80%가 비슷한 가운데 20%의 변별성이 있다면 그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개별 연행록의 가치를 규명하는 관건이라고 사료된다.

Ⅲ. 맺음말

조지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에서 “생계 때문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글을 쓰는 동기는 크게 4가지라 생각한다.”라 하였다. 첫째는 순전한 이기심이요, 둘째는 미학적 열정, 셋째는 역사적 충동이며,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셋째 역사적 충동에 관해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두려는 욕구를 말한다.”고 하였다. 연행 체험의 기록 행위는 이와 가장 근접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

전통시대에 연행 체험이 세계로 가는 통로였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공적 루트를 통한 사적 여행을 기록으로 극대화시킨 결과물이 바로 연행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기록물이기에 독자층을 의식했을 가능성, 또한 공적 루트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후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공존한다. 이러한 점이 傳言을 통한 代理見聞을 기록하며, 先行 연행록 체제의 전형성을 답습, 부연, 확장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이에, 연행 기록의 관행적 요소를 평가절하 하기 보다는 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적 관점에서 표절 혹은 무의식의 관습적 서술이라 폄하하기에 앞서 동일한 공간을 배경으로 시간적 누적에서 오는 건

문 지식과 풍부한 정보의 총체임을 인식하고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⁴¹⁾ 다시 말해 연행록 글쓰기의 관행과 그 메커니즘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41) 진재교, 「燕行錄과 知識情報 -지식·정보의 수집과 기록방식」, 『대동문화연구』 97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p.45 참조.

<參考 文獻>

- 金進洙 『碧廬集』, 『여항문학총서』 5, 임형택 편, 여강출판사, 1984.
- 李義鳳, 『北轅錄』, 『연행록선집 보유』 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 2008.
- 李永得, 『燕行雜錄』, 『연행록선집』 41, 임기중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姜浩溥, 『桑蓬錄』, 『연행록선집 보유』 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 2008.
- 金景善, 『出疆錄』, 『연행록선집』 72, 임기중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趙鳳夏, 『燕薊記略』, 『연행록속집』 72, 임기중 편, 상서원, 2008.
- 金昌業 『燕行日記』, 李海應 『薊山起程』, 朴思浩 『心田稿』, 金景善 『燕轅直指』는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서DB 활용.
- 김영죽 역, 이의봉 저, 『북원록』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김영죽, 박동욱 공역, 이의봉 저, 『북원록』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징』, 혜안, 2007.
- 박동욱 역, 이의봉 저, 『북원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박성호, 「연행록의 전설 수용 양상과 『일암연기』의 글쓰기 방식」, 『온지논총』 49집, 온지학회, 2016.
- 서한석 역, 황재 저, 『갑인연행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공역, 유득공 저, 『열하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 열하기 행시주』, 휴머니스트, 2010.
- 임기중, 「연행가사와 연행록의 상호원전성과 유행양식」, 『연행록연구총위』, 학고방, 2014.
- 조용화·신익철·부유섭 역, 이기지 저, 『일암연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진재교, 「燕行錄과 知識·情報 - 지식·정보의 수집과 기록방식」, 『대동문화연구』 97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하현주 역, 황재 저, 『경오연행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Abstract

*The practice of Yeonhang(燕行) experience record and its mechanism / Kim Young-jook**

The discussion on the record of the performance and its change to be discussed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t of the Yeonhang(燕行) experience. However, the period was limited to data from th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imitation of the text, the description of the text, and the extensibility are distinctively expressed in this period record. The imitation of the Yeonhang(燕行) text, the explanation and extension, was a kind of practice. But this practice can not necessarily be viewed as a negative view.

Yeonhang texts until the mid-18th century imitate Kim Chang-up's <Yeonhang diary> and endeavor to demonstrate the way to Beijing. By the mid and late 18th century, it became impossible to distinguish what part was already quoted and what part was recorded by oneself.

As the Yeonhang record data is accumulated and the search function is increased, the researchers have tried to identify their value. But the result was paradoxical. The individualized evaluation of the single text was largely similar to previous records. If so, can we say that all of them are ineffective and worthless? Rather, after Kim Chang-up's <Yeonhang diary>, it would be meaningful to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common causes of records that are common in the Yeonhang record.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ractices and the mechanism of writing around Yeonhang text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Key words】 Yeonhang(燕行) text, practice, explanation, extension, 18th and 19th centuries.

투고일 : 5월 22일, 심사완료일 : 6월 4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 Researcher of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 /
wensex@hanmail.net